

자조금의 필요성 홍보로 동참을 이끌어야...

이 한 면 정우식품(주) 차장

월빙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대에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모든 산업이 도산 위험속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1차 산업중 축산업 범위의 양계산업은 더더욱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원인은 치솟는 생산비에 소비자 가격은 몇 년 전에 비하여 제자리걸음이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면 무분별하게 수입 양계산물이 밀려와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안타가운 소식이 들려오곤 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요즘 2002년도에 제정된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것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조금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선정된 사업대행기관에서 자조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누구나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빠른 시일 안에 활성화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연기금(연금)에 대하여 불신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안타가운 일이다. 자조금도 연기금으로 생각하여 혹시나 부실하게 운영 될 것이라는 선입감을 지워버리도록 확실한 사업계획과 관리, 투명한 운영이 보장된다는 점을 계속하여 대행기관의 회원들에게 믿음이 가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여야 믿고 자금조성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셋째 자조금조성은 수당1원으로 시행하면 현재는 미약하나 크게 성장하리라 확신한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로 수혜자는 우리 모두 아닌가? 부화장은 병아리 출하시에, 양축기는 입식시에, 도계장은 도계시에 1원씩만 참여하여 자조금을 적극 활용한다면 분명 수입축산물과 국내 축산물을 차등화하고 또한 국내 축산물 우수성 홍보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은 확실하며, 국내 양계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아 생산기반과 유통 등 양계 관련업체 모두가 상생에 대로를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계**